

# “이젠 머무는 축제로” 담양대나무축제, 이색 콘텐츠 풍성

## 내달 2~6일, 요리 경연대회·패션쇼 등 다채 전 세대가 즐기는 체험과 공연·야간 축죽원까지

가정의 달인 5월2~6일 축죽원 일원에서 열리는 제24회 담양 대나무 축제가 다채로운 콘텐츠를 갖추고 체류형 축제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다.

‘담양 초록에 물들다·대나무의 향연 with Daenamoo’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황금 연휴 기간과 맞물려 전 세대를 아우르는 공연과 체험, 야간 개장 등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개막일에는 꽃탑광장에서 청소년 그림대회와 시니어 패션쇼, 마칭밴드와 함께하는 개막퍼레이드로 축제의 막을 연다. 개막식 후 가수 이찬원,

지창민 등의 초청 공연에 이어 드론 라이트쇼가 축제의 시작을 장식한다.

이튿날에는 군민의 날 행사를 시작으로 초대가수 공연과 지역예술인 공연, 김경호 밴드, 황윤성 등이 출연하는 대나무콘서트가 축제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4일에는 죽신제와 죽순요리 경연대회, 크랙시와 더블루아이즈 등 청춘을 위한 공연도 진행된다.

어린이날인 5일에는 어린이뮤지컬 베베핀 공연, 청소년 댄스페스티벌, 마술공연이 펼쳐지고 추성경기장에서는 대나무드론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가족 단위 프로그램이 펼쳐진

다. 마지막 날에는 대나무양상을 음악회, 지역예술인 공연이 예정돼 있다.

축제 기간 축죽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장료를 환급형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해 축제장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무료 야간개장으로 경관 조명이 더해진 대숲의 밤을 색다르게 즐길 수 있다.

축죽원 보조부대에서는 대피리 공연, 팡페라 ‘오페라의 유령’, 한국국악협회 전통국악 공연, 담양 관광슬래, 대숲요정 포토타임, 패션쇼 등이 관광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 팝업스토어, 판다 게임, 축제티셔츠 판매, 버스킹 등 풍성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무료 즉석사진관에서 대나무축제의 추억을 담은 사진을 SNS에 흥



보하면 다섯컷 사진을 담은 액자를 기념품으로 가져갈 수 있고, 경품이벤트로 열린다.

정철원 군수는 “담양만의 낭만 가득한 콘텐츠를 총망라한 이번 축제

로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며 “편의시설, 교통, 주차 안내 등 준비를 철저히 마친 만큼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양=강성국 기자

## 신안 흑산도서 ‘K-관광섬 탐조대회’ 내달 3~6일 개최

신안군은 오는 5월3~6일 흑산도에서 ‘K-관광섬 흑산도 탐조대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흑산도는 국토 최서남단 해역에 자리해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서식지로 매년 370여 종의 철새들이 정기적으로 통과하는 국내 최대 철새 중간 기착지다.

국내 최초 조류 관련 전문연구기관인 국립공원연구원 조류연구센터가 지난 2005년 설립됐고, 우수한 새 표본들이 전시돼 있는 철새박물관과 전 세계의 수많은 조류 공예품과 조

각상을 보유한 새공예박물관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번 탐조대회는 국내 탐조객방 1호로 탐조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탐조객방’이 진행을 맡아 흑산도 탐조와 더불어 홍도 선상탐조, 가락지부착 조사 참관 및 교육, 탐조 그림책 그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참가대상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하는 탐조여행의 콘셉트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생까지의 가족으로 구성된 총 10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탐조대회 신청은 ‘탐조

객방’ 공식블로그와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신청서를 받고 있으며, 마감 기한은 26일까지다.

김대인 군수 권한대행은 “흑산도는 국내에 기록된 600여 종 중 국내 최대인 420여 종이 관찰된 중요한 철새 중간 기착지로 탐조관광에 최적화된 섬”이라며서 “이번 탐조대회를 시작으로 K-관광섬 흑산도 탐조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자연 친화적인 탐조회랑 및 탐조대 조성 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안=정영욱 기자

## 순천 ‘교통문화지수 평가’ 전남 1위 수상

방향지시등 점등률·신호 준수율 등 시민 교통문화 수준 높게 평가



순천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상주 교통안전 체험 교육센터에서 열린 ‘2024년 교통문화지수 평가’ 시상식에서 전라남도 내 1위, 전국 인구 30만 미만 도시 중 2위를 차지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표창을 받았다

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여, 지난해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교통문화지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지자체를 격려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위해 마련됐다.

시는 운전행태(51.16점), 보행행태(17.78점), 교통안전(20.36점) 등 총 89.29점을 획득하여 전국 인구 30만 미만 시 중 상위권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특히, 운전행태 항목 중 ‘방향지시등 점등률’과 보행행태 항목 중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에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결과는 시민들의 일상 속 교통안전 실천과 더불어, 순천시의 지속적인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 노력의 결실로 평가된다. 시는 최근 수년간 대중교통 편의시설 개선, 스마트 교통신호체계 도입, 보행자 중심 도로환경 정비 등 다양한 교통안전 인프라 사업을 추진해 왔다.

/순천=조순익 기자

## 해남 가축시장, 내달 8일 재개장 한다

송아지 거래는 내달 10일 특별 개장

해남군은 구제역 영향으로 일시 폐쇄됐던 해남진도축협 가축시장을 내달 8일 재개장한다고 밝혔다.

송아지의 경우 물량 해소와 축산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5월10일 특별 가축시장을 개장한다.

해남진도축협 가축시장은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일시 운영이 중단됐다가 방역 체계와 시설 전환을 정비하고 2개월여 만에 재개장하게 됐다.

앞서 구제역 발생 직후 청소·세척·소독 조치를 마쳤다. 구제역 기간 동안 군에서 지원한 LED 전광판,

통합재어시스템 등도 구축해 스마트 가축시장 플랫폼도 마련했다.

군은 가축시장 재개장에 따라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농가가 우시장 진입 시 구제역 의심 증상 여부 확인, 거점소독시설 소독, 가축시장 진입 차량 내외부 소독을 거쳐야 한다.

군 관계자는 “축협과 협력해 가축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축시장을 방문하는 모든 차량의 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남=김동주 기자

## 강진 신청년 올드대학 개강 ‘힘찬 출발’

기술습득·재능기부·여가활동 등 인생 2막 프로젝트 시동

강진군이 ‘2025년 신청년 올드대학’ 개강식을 지난 24일 어울림센터에서 상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총 30명의 수강생이 참여해 새로운 배움의 출발을 알렸다. ‘올드(YOLD)’는 젊음을 의미하는 ‘Young’과 노년을 의미하는 ‘Old’의 합성어로, 전통적인 노인 개념을 탈피해 활기차고 능동적인 시니어 세대를 일컫는다.

이번 교육과정은 60세 이상 신청년들을 대상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진행된다. 상반기 7회, 하반기 7회로 나뉘어 운영되며 각 파트별로 특화된 교육 목표가 설정돼 있다.

상반기에는 ‘건축도장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실습 중심의 전문 교육이 진행된다. 신청년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실제 재취업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유익한 과정으로 참가자들의 높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반기에는 삶에 여유와 웃음을 더해줄 문화, 체험, 교류 중심의 취미·여가 프로그램이 마련돼 배움과 즐거움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시간으로 구성



된다. 특히 하반기에는 상반기 과정에서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마을 소후 벽화 보수 봉사활동 펼쳐 수강생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 주민들과 교감할 수 있는 뜻깊은 나눔의 시간이 될 예정이다.

이번 ‘신청년 올드대학’은 강진군의 대표적인 군민 맞춤형 정책 브랜드 중 하나로 주목 받고 있다. ‘반값관광’은 강진의 이름을 전국에 알린 성공적인 지역관광 모델로 많은 방문객을 끌어들이며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켰고, ‘강진군 육아수당’은 아이 키우기 좋은 강진을 만들기 위한 미래세대 투자로 각광받고 있다. /강진=김경선 기자

순천만가든마켓&에코와일드

어린이날 기념 내달3~5일

‘가든마켓 동물나라’ 운영

어린이날을 맞아 농업회사법인 순천만가든마켓과 에코와일드가 함께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오는 5월 3일부터 5일까지 순천만가든마켓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가든마켓 동물나라’를 주제로 포유류부터 곤충, 파충류까지 다양한 동물 체험을 진행해 어린이들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안길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알파카, 면양, 염소, 미니말 등 다양한 동물과 교감할 수 있는 ‘동물나라’ 프로그램을 비롯해 미니앵무새 체험장, 곤충·파충류 체험장, 동물 먹이 주기, 생태교구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이 마련된다.

체험료는 1인당 2천원이다. 응급처치 부스와 안전요원, 사육사 등을 배치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사 기간 3일 동안 낭만 버스킹 공연도 진행돼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채울 예정이다.

목포시립도서관, 찾아가는

지역작가문학 강좌 운영

목포시립도서관이 전라남도립도서관이 주최하는 ‘2025년 찾아가는 지역작가 문학 강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학강좌를 운영할 예정이다.

‘목포의 시간, 문학이 되다’라는 프로그램명으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김희영 작가와 함께 목포의 문학과 배경을 탐구하고, 자신의 시선으로 직접 글을 집필해 원고를 완성한 뒤, 책의 디자인과 출판, 유통까지 참여해 통합 문집을 제작한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글쓰기 강좌를 넘어, 개인의 경험과 지역의 이야기를 문학으로 재구성해 지역성을 담은 창작 활동으로 목포의 문화적 가치를 널리 확산하는 데 그 의미를 두고 있다.

수강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목포시통합도서관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목포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성을 담은 문학 창작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지역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목포의 일상과 기억을 글로 남기고 싶은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목포=김재욱 기자

광양시-광양소방서

합동 소방훈련 실시

광양시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인 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가족에서 광양소방서 금호119안전센터와 함께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앞서 진행된 광양 김시식지 소방훈련에 이은 두 번째 현장 훈련으로, 최근 전국적으로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화재 위험성이 높아진 가운데, 목조문화유산에 대한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재 보호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훈련에는 광양시 문화예술과, 금호119안전센터 소방대원, 가족 소유자, 문화관광해설사 등 1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실제 화재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통해 소화전 작동 실습, 경보설비 점검 등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대응 절차를 숙지했다.

김명덕 광양시 문화예술과장은 “금호119안전센터와 함께한 이번 훈련을 통해 문화유산 현장에서 실질적인 화재 대응 능력을 점검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문화재 재난 대응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조순익 기자